

자원재활용



홍순기

행정사무관
국립환경연구원 연수부 교육과

赤貧의 시대에서 貧困의 시대를 거쳐 요즘의 過剩소비 시대를 이룩하는 여명기인 생각하기 싫은 60년대, 그 시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으로 인한 힘겨운 삶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나도 그 대부분의 사람 중에 하나였다.

“몽치면 죽고 흠어지면 산다던가?” 식구들 중 나의 한 입이라도 덜어 보려고 강원도 묵호 진리 산비탈 움막에 하숙하면서 20人乘 정도 되는 작은 오징어 배의 어부로 일하게 되었을 때 當時 가장 부러웠던 것은 크고 새로운 배의 어부들이었다.

내가 타던 배의 이름은 新進號였는데 이름과는 너무 걸맞지 않았으며 지금 생각하여보면 아마 日帝時代 中期 즈음 만들어진 木船으로서 배의 모든 부분이 재활용의 재활용을 거듭했던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내가 탄 지 열흘도 안되어 밤 열두시 경 기관고장을 일으켜 파도에 대응하지 못해 표류하게 되었는데 기관장도 수리를 못하자 처음에는 사람들이 기관장에게 “저 새끼부터 물에 쳐 넣어야 된다.”는 등 욕설을 퍼붓더니 나중에는 불안감을 떨쳐 보려고 해서인지 저마다 노래를 부

르는데 “복포의 눈물” 등 배나 바다와 관련된 노래는 들은 기억이 없다. 그날따라 波濤도 높아 겁도 났지만 더욱 괴로웠던 것은 나를 배에 탈 수 있도록 소개해준 오십대 어부 윤 노인의 “나야 살만큼 살았지만 저런 애들이 불쌍 허구먼” 하는 탄식소리가 들렸다.

얼마 후 나를 제외하고 모두 기술자가 되었고 낡은 배의 실수(?)인지 새벽 동이 틀 무렵 기관이 가동되어 묵호항에 배가 도착했는데 배가 늦게 도착한 탓에 그 당시 혼란 일로서 遺族이 될 뻔했던 가족들이 모두 나와 환호성을 질렀지만 맞이할 가족이 없었던 나는 달랐다. 혼자서 배에 내리는 순간 산 위로 달렸다. 달리면서 생각했다. 다시는 배를 타지 않겠다고, 풍파에 놀란 사공 배를 팔아 말을 산다던가? 곡질 끝에 鑛物공장의 풀무(용광로에 바람을 불어넣는 재래식기구)꾼으로 變身하였고 이때 나의 金屬類資源再活用技術은 다소 습득되었다.

그 후 지난 일년간 애써 모았던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중퇴했던 학교를 다시 다녀 보려고 서울 종로5가 동대문극장 주변에서 20원주면 잠자고 15원주면 한끼를 먹

는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그곳은 기억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헌옷, 헌 구두, 中古기계류, 등을 파는 중고품가게의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나의 옷과 신발 등은 그곳에서 구입하여 사용했으나 찼찼했다. 그것은 장물(贓物)일지 모른다는 것과 行旅病者나 故人들의 옷이 아닌지 그러나 그것도 날이 갈수록 무디어졌다.

그런데 나는 밥집에서 재활용의 큰 스승(?)을 만나게 되었다. 그분의 존함은 모르지만 나와 밥집에서 겸상을 하며 대화를 자주 나누다 보니 알게된 것은 처자식을 이복에 두고 열떨에 월남하신 분이며, 재건대원(녕마주이패) 출신임에도 무슨 사연인지 혼자서 古物을 싸게 사거나 주워 파는데 대야, 구두, 널어놓은 옷가지 등을 가끔 슬쩍하여 목돈(?)을 만지기도 하는 것 같이 보였고 단돈1원을 목숨보다 더 아끼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분으로부터 나는 폐휴지(신문용지, 현상자, 현책종이 등), 폐비닐(딱딱이와 불렁이), 고철(무쇠, 황철, 놋쇠, 구리, 양은, 상납, 재납, 땀납 등)의 각각 가격 이외에도 어느 고물상에서 가격을 잘 쳐준다는 것까지 알게되었다. 아마 나를 제자로 삼으려고 했나보다.

그 해 1월부터 이듬해 겨울 그분이 청계천변 판자집 냉방(내가 있던 방도 추운 겨울에는 머리맡에 물이 퐁퐁 얼어 붙었고 이불은 봉제공장의 녀마뭉치였다)에서 凍死할 때까지 약 일년간 지나면서 그분의 습성은 내가 기억하는 것으로 두 가지가 있다. 사람은 똥심(힘)으로 사는데 대변은 참을수록 좋다고 말하는 것과 반찬은 내가 남긴 것까지도 모두 먹는데 새우젓은 소화가 너무 잘 된다고 안 먹는 것이다. 이듬해 날씨가 대단히 추웠던 小寒무렵 나는 추위를 피해 반기지 않는(그 시절에는 사람들에게 이가 많았다) 친구들과 먼 친척집을 전전하며 며칠만에 다시오니 그분은 몇 원 싸게 잠을 잘 수 있게 해준다는 청계천변 판자집 냉방에서 동사하셨



내가 이용하는 고물상 주인은 20년지기 친구가 되었다.

는데 누군가 말했다. 객사를 해도 상주 셋은 있다고 지금 생각해보니 喪主는 경찰, 구청, 보건소직원쯤 되리라.

그러나 나는 국가유공자 한 분이 가셨다고 말하고 싶다. “비록 통일의 그 날이 오면 이북고향에 두고 온 그리운 처자식과 만날 준비를 하였을 것이지만 그대로 없어질 쓰레기를 모아 자원을 재활용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그토록 애써 모았던 돈을 국가에 바침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은 물론 국고증대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실향민인 그분이 고향을 그리며 목침(통나무 베게)위에 흘렸을 한 줄기의 눈물이 4大江 수위에 영향이 없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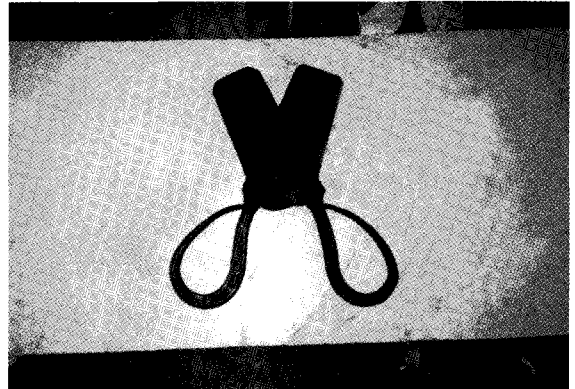
지금 내가 사는 집 위치는 동사무소 앞이며 약간 떨어져서 폐휴지, 고철 등을 취급하는 고물상이 두 곳이나 있다. 출퇴근길에 자꾸 눈길이 가는 곳이 있는데 동사무소와 붙어 있는 쓰레기 集荷場이다. 그런데 그곳에는 돈이 되거나 내가 필요한 물건들이 자주 눈에 띈다. 그때면 우선 남이 볼새라 열린 우리 집 울타리 안에 던져 놓고 다음 일을 본다.

한편 나에게게는 재활용의 큰 협조자가 있다. 나이 원셋이 되는 동생인데 “열 가지 재주 가진 놈 끼니 채울 날 없다” 던가? 그러나 돈버는 재주 빼고도 타고난 손재

주가 있다. 그림, 목공, 미장, 샷시, 유리, 어떤 기계든지 대부분 쓸 수 있도록 고치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공사현장의 일용근로자로서 나와 함께 산다. 동생을 시켜 모아놓은 앵글과 두꺼운 유리는 커다란 분재받침대를, 쓸만한 나무와 유리로는 멋진 의자나 탁자를 만들고, 양은냄비나 그릇, 등산용 버너, 칼 등은 수리하여 쓸 수 있을 만큼은 쓰고 울타리가 얇은 마당에 놓으면 며칠 후 저절로 없어지기도 하며 거기서 남은 것과 돈은 되나 쓸 수 없는 구리, 양은 등 비철금속류 외에도 여러 가지를 고물상에 갖다 주는데 돈을 받지 않고 주는 척하다가 다음에 내게 필요한 팽이, 삽, 꽃삽, 옥상 밭에 심은 들깨 고추의 지지용 철근 등을 대신 가져오는데 제일 신나고 수지(?)맞는 것은 庭園石, 수석, 맷돌, 서화류, 옛날가구 등을 가져올 때이다. 비록 지금은 보관 할 곳도 별로 없지만 언젠가 누구인가의 정원이나 실내장식 등에 크게 쓰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버릇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은 동네 부끄럽다고 성화이며 노모님은 대놓고 한 말씀하시는데 “굿을 해야지 원 거지 귀신에 씌었나”하고, 그러나 그것도 이제는 일년여전 동생이 돈 못 버는 가정불화로 우리 집에 같이 살게 되면서 해방되었다. 아내와 아이들은 시동생이자 숙부인 동생이 어려워서 말 못하고, 그리고 노모님은 내가 슬쩍 압력(?)을 가했다. 동생의 숙식 제공비를 돈으로 받을 수 없지 않느냐고...내일 아들의 軍입대 날이다. “아빠 용이(孤兒인 아들친구)가 그러는데 사람들이 아빠는 짝쇠(주워 오는 사람)구 작은 아빠는 딱쇠(고치는 사람)라던데..”나는 벌칙 화를 냈다. “얌마 사내가 애비 나이 즈음되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해야지 남의 말이 대수냐 그러구 군대가서 말버릇 좀 고쳐 다 큰놈이 맨날 아빠가 뭐야”

나의 옳다는 생각은 생명과 관계되지 않는 재활용은 사람과 물건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알뜰한 목수 구부러진 못 펴서 쓰듯이...



재활용의 상징마크(?)인 옛가위



앵글로 만든 수석 받침대는 재활용중 최상품이다.



우리집 앞 쓰레기장은 나의 생필품 조달창고(?)로 쓰인다.

